



청송심씨 심벌마크

青松沈氏宗報

발행인 : 회장 심대평
편집인 : 문화이사 심갑택
서울시 중구 을지로30길 47,
찬경회관 5층
전화 : (02)2267-7857
(02)2267-9339
F A X : (02)2269-7755
인쇄 : SNS인쇄
02-2277-0245

격월간 제134호(1955년 6월 5일 창간)

홈페이지 | www.csshim.or.kr

2018년 11월 30일(금)

장학재단 설립 · 모바일 정보 · 전국심씨대회 추진

대중회는 2018년 11월 26일(화) 제3차 대중회발전위원회를 열고 지난 제1, 2차 발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업계획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발전위원회는 이날 ①장학재단 설립을 통한 체계적인 장학사업 확대 ②젊은 세대 참여와 이용 편의를 위한 모바일 정보 운영 ③송조돈목과 뿌리교육 활성화를 위한 전국 행사 추진 등 3개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1. 장학사업

발전위원회는 지금까지 대중회에서 인원을 선발해 여러 명에게 조금씩 나눠주던 장학금 지급 방식을 대폭 수정하기로 했다. 즉 장학재단을 설립해 전문적, 안정적으로 장학재원을 관리하고, 장학금지급도 현재 각 지·파총회에서 참여하고 있는 장학회 운영과는 별도로 특정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영재학생을 소수 선발해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2. 정보 발간 개선

정보 개선의 핵심은 기존의 종이 정보 외에 모바일 정보를 도입하는 것과 양측 정보에 콘텐츠를 제공하거나 관리하는 인원을 전문가로 대폭 확충한 것이다.

가. 모바일 정보 운영

그동안 모바일 정보(웹진) 운영을 위한 준비 작업을 해 왔으며 2018년 11월 28일 시연회를 거쳐 2019년부터 본격 운영한다. 모바일 정보는 대학생 등 젊은 세대를 독자로 확보하고 일가들의 소식과 유익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 위한 것이다. 대중회는 모바일 정보가 젊은 종인들의 참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 정보 편집위원 보장

대중회는 '정보편집위원회 규정 개정안'을 만들어 전문지식과 경륜이 있는 정보 편집위원을 보장했다. 정보편집위원회는 앞으로 지역별 책임자를 임명하고, 그들을 모아 교육하는 기회도 마련할 계획이다.

3. 송조돈목의 실천과 뿌리교육

대중회는 내년에 전국의 일가들이 모여서 조상을 숭배하고 화목을 도모하기 위해 '청송심씨 전국대회' 개최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이 대회를 이벤트성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학생과 젊은이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하고, 이들의 뿌리교육에 도움을 주는 쪽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많이 제시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앞서 심대평 대중회장이 심상군 대중회발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장학사업, 정보발간, 청장년 분야 등에서 기여할 신입위원 9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모바일 정보 시연회-내년 1월부터 본격 운영

대중회는 2018년 11월 28일 저녁 서울역 프리미엄 라운지에서 그동안 개발해온 모바일 정보 시연회를 열었다. 시연회에는 대평 대중회장을 비롯해 정보 편집위원, 상근 간부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시연과 설명은 우리 일가로서 그간 모바일 정보(웹진)를 개발해온 동호 누리비전 대표가 맡았다. 모바일 정보는 내년 1월부터 본격 가동한다. 이 자리에서는 모바일 정보를 만들면 종이 정보는 없어지는 것인지, 모바일 정보를 운영하는 데 경비가 너무 많이 드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가 나왔다.

대중회는 모바일 정보를 운영해도 당분간 종이 정보도 함께 발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모바일 정보를 만들면 초기비용이 2000만 원 정도 들어갈 것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이익이라는 점을 설명했다.

■ 모바일 정보 도입 배경

현재의 종이 정보는 발행에서 배송까지 경비와 시간이 많이 들고, 즉각적인 뉴스 전달이 힘든 데다, 젊은층의 선호도와 접근성이 떨어진다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모바일 정보를 만들면 이런 단점이 해소되고, 모바일과 PC를 통해 종회소식, 종회원 활동, 각종 공지사항 등을 더 빠르게, 더 많은 종회원에게, 더 쉽게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모바일 정보 운영 방식

모바일 정보는 대중회 소식, 행사, 종회원 동정, 지파종회 소식, 종회관련 각종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올릴 수 있다. 모바일 정보에 실린 자료는 날짜와 카테고리 별로 관리하고 검색기능을 통해 언제든지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찾을 수 있다.

종회원들이 자유롭게 글을 올릴 수 있는 커뮤니티도 운영한다. 모바일 정보에 실린 각종 정보를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등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전달

하거나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모바일 정보는 '구글 애널리틱스' 기능을 활용해 방문자수와 방문자 연령, 접속지역, 유입경로 등을 알 수 있다. 이 통계를 이용하면 유용하거나 주목도가 높은 콘텐츠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 모바일 정보의 활동 방향

정보편집위원회는 일정 기간 동안 가장 많은 콘텐츠를 올린 종회원, 가장 많은 클릭수를 기록한 콘텐츠를 생산한 종회원 등을 시상하거나, 특정 주제를 주고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도록 한 뒤 우수작품을 선정해 시상하는 등 각종 이벤트를 통해 모바일 정보 활성화에 노력할 계획이다. 심대평 대중회장은 이날 "앞으로 2년 내에 모바일 정보 가입자가 2만 명이 넘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고 "가입자가 그 정도 되면 모바일 정보를 활용한 광고수익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9년 지급 장학금 안내

매년 뿌리교육 시 지급하던 장학금을 2019년부터는 재단법인 청송장학회를 설립하여 운영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장학재단 설립 이후 장학금 신청공고를 낼 계획이며, 차후 정보나 홈페이지를 통하여 일정 공지 예정이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우리 청송심가 이야기(6)

오늘을 나의 제삿날로 삼으라

악은공 원부 할아버지



심후섭 (沈厚燮)

종보편집위원
아동문학가·교육박사
전 대구광역시달성교육지원청 교육장
현 사단법인 우리예절교육원 원장

지난 호에서 우리 청송심가는 경과(京派)와 향파(鄕派)로 나눌 수 있다고 했지. 경과를 이룬 할아버지는 청성백(靑城伯) 덕부(德符)이시고, 향파를 이룬 할아버지는 악은공(岳隱公) 원부(元符)이시지.

오늘은 악은공 에 대한 이야기를 할 차례로구나.

경북 청송군 덕천 마을에 가면 악은공을 모신 재실(齋室) 경의재(景義齋)가 있어. 이곳에 가면 건물 오른쪽으로 악은공과 그 아들인 영동정공(令同正公 天潤), 그리고 손자인 석촌공(石村公 孝尙) 3대를 제사 지내기 위한 제단비가 나란히 서 있어. 그 비석에 따르면 이 3대는 그 묘소가 어디에 있는지 전해지지 않고 있다고 해.

그것은 고려(高麗)가 망하자 고려에서 벼슬을 하고 있던 악은공이 두문동(杜門洞)이라는 깊은 산으로 들어가서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불에 타서 돌아가셨으나 시신을 찾을 수 없게 된 때문이었어. 악은공께서는 새로 일어난 조선(朝鮮)에서 아무리 벼슬을 내리려 해도 '나라는 비록 망했지만 나는 고려의 신하이다. 두 임금을 섬길 수 없다.'고 하시며 두문동으로 향하셨던 거야.

그 때 아들 영동정공에게 말씀하셨어.

"너희들은 나를 따르지 말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선산(先山)을 수호하며 책을 읽고 농사를 지으며 남들의 부귀를 부러워하지 말라. 우리 집안은 대대로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는 충효의 집안임을 잊지 말라. 그리고 내가 두문동으로 들어가는 오늘을 나의 제삿날로 하고 3년 상을 치르기 바란다." 그리고는 소식이 끊기고 말았어. 두문동은 지금의 경기도 개풍군 광덕면 광덕산 기슭에 있다고 해.

한편 아버지의 생사를 알 수 없었던 영동정공은 두문동이 불태워져 그곳에 있던 고려의 선비들이 모두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는 아들 석촌공을 데리고 시신이나마 거두려고 길을 나섰다. 두 분 또한 함께 행방불명되고 마셨어. 당시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朝鮮)을 세운 이성계(李成桂)가 자신에게 항복하지 않은 두문동 72현은 물론 이곳을 찾아온 그 후손들도 모두 잡아 처형한 것으로 보여.

악은공은 어려서부터 용모가 단정하고 총명하였고 고 하는데, 역옹(櫟翁) 이제현(李齊賢, 1287~1367)의 문하에서 학문을 배운 후 고려 말에 관직에 올라 승진을 거듭해서 공양왕(1389~1392) 때에는 오늘날의 총무처장관에 해당하는 전리판서(典理判書, 정 2품) 관직을 역임하셨어.

전리판서는 고려시대 중앙관부의 하나인 전리사(典理司)의 우두머리였는데, 이곳에서는 문관의 선임(選任)·공훈(功勳)·예의(禮儀)·제향(祭享)·조회(朝會)·교빙(交聘)·학교(學校)·과거(科擧) 등에 관한 일을 관장하였어. 그래서 전리판서는 학식도 높아야 했지만 사리(事理)에 공정한 사람을 골라 임명하였다고 해. 오늘날의 행정안전부가 하는 일과 비슷한 것으로 보이는구나.

역옹 선생은 경주이씨(慶州李氏)로 1301년 성균시(成均試)에 장원하고 이어 문과에 급제했으며 1354년 우정승(右政丞), 1356년에는 문하시중(門下侍中)에 올랐는데 당대의 명문장가로 정주학(程朱學)의 기초를 확립하였고, 조맹부의 서체(書體)를 도입하여 유행시켰어. 그리고 그 유명한 <역옹패설(櫟翁辨說)>을 지으신 분이기도 해.

덕천마을 입구에는 악은공의 손자인 그러니카 영동정(令同正) 천윤(天潤)의 맏아들인 석촌(石村) 효상(孝尙)이 동생인 만우(晩愚) 효연(孝淵)을 먼저 이곳 고향으로 내려 보내면서 읊은 '還去靑松(환거청송)'이라는 시(詩)를 새긴 비석이 서 있어.

還去靑松(환거청송) (떠나온 곳으로 다시돌아감)

落葉滿程時(낙엽만정시) 낙엽 가득한 길거리에서
吾家兄弟離(오가형제리) 우리 형제 이별하는가
送君還故土(송군환고토) 동생을 먼저 고향으로 보내며
白首看雲思(백수간운사) 백발 늙은 형은 구름만 쳐다보네

이 시는 6世祖 석촌공 휘:효상(石村公諱:孝尙)께서 아우 만우공 휘:효연(晩愚公諱:孝淵)을 고향(故鄕)으로 보내면서 남긴 시이다.

만우공(晩愚公)께서는 가선대부 호조판서(嘉善大

夫戶曹判書)을 지내셨으며 고향인 덕천(德川)에 돌아와 사시다가 1490년 홍치경술년(弘治庚戌年)에 졸(卒)하셨고 묘소는 덕천 구지곡 축좌(德川 求之谷 丑坐)이다.

이곳 덕천은 시조 문림랑공 휘 : 홍부(始祖 文林郎 公諱 : 洪孚)의 묘소(墓所)가 가까이 모셔져있고 석촌공 만우공 형제(石村公 晩愚公 兄弟)분의 후손(後孫)이 집성촌(集姓村)을 이루고 충효(忠孝)의 훈(訓)을 가훈(家訓)으로 삼아 대대(代代)로 살아온 세거지 청송심(世居地 靑松沈氏)씨의 본향덕천(本鄕德川)이다.

그래, 몹시 비감(悲感)하여 쓸쓸한 느낌이 드는구나.

서울에서 모든 벼슬을 버리고 할아버지를 찾아 떠나면서 동생을 먼저 청송으로 내려 보내야 하는 형의 마음이 어땠겠니? 더구나 낙엽이 뒹구는 으슬으슬한 찬바람 부는 가을날에.....

영동정공은 야은(治隱) 길재(吉再, 1353~1419) 선생과 편지를 주고받으며 나라를 걱정하는 사이였어. 길재 선생이 구미 금오산으로 내려갈 때에 '귀전시(歸田詩)'를 지어보내기도 하였어. 뒷날 태종(太宗)이 수차례 벼슬자리에 나올 것을 권했으나 나오지 않으셨지. 그러자 태종이 '충효려(忠孝閨)'를 내리기도 하였어. 충효려는 충효가 가득한 사람에게 내리는 정문(旌門)을 말해.

이러한 영동정공의 맏아들이 바로 석촌 효상공이야. 효상공은 이 시를 읊고는 아버지 영동정공과 함께 할아버지를 찾아 두문동으로 길을 떠나셨어. 그리고 효상공의 동생 만우공은 덕천으로 내려오셨고.....

그때 악은공을 찾아 길을 떠난 아들 영동정공과 석촌공은 끝내 돌아오지 못했어. 그래서 그 뒤 이곳 후손들이 이 3대를 모시기 위해 '경의재(景義齋)'라는 재실을 짓고, 그 위패(位牌)를 모셨어. '경의재'라는 당호(堂號)는 '의(義)로움을 높이 밝힌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오른쪽 마당에는 악은공, 영동정공, 석촌공 3대의 제단(祭壇)을 나란히 설치하였어. 제단은 무덤을 대신하여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만든 단(壇)을 말한다.

생각해 보면 우리 선조님은 의(義)를 지키고 효(孝)를 실천하기 위하여 목숨도 내던지셨던 거야. 이러한 선조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깊은 교훈을 간직해야 한다.



경의재 전경(경북 청송 덕천마을 소재)



경의재 제단비(왼쪽부터 악은공, 영동정공, 석촌공)



석촌공의 환거청송 시비



심성지(19세) 영세불망비

경남 합천군 대양면 사무소 앞마당에는 여러개의 비가 세워져 있다. 이 비들은 대양면 관내에 산재해 있는 송덕비를 모두 대양면사무소 앞마당으로 이전한 것이다. 그중에 우리 선조님의 비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비명은 심성지 군수의 영세불망비이다.

심성지는 19세손으로 안효공파 온양공, 은교공(광세)계로서 부는 전이요, 조부는 몽현 이며 성지는 3형제 중 2째다.

1739년 영조15년 기미생으로 1800년~1802년에 합천군수로 봉직하였으며 봉직 후 고을 백성들에 의해 영세불망비가 세워진 것으로 전해진다.

1810년 순조10년에 졸 하였으며 배위는 한산 이씨다.

묘는 경기도 광주에 있었으나 1980년 안성시 삼죽면 마전리로 천장하였으며 증 이조참판이다.

영세불망비는 4연4연으로 구성되어 기, 승, 전, 결을 갖추고 있다.

移柩客館: 객관을 옮겨 세우면서

民不知後: 백성들이 모르게 하였도다.

減給烟戶: 집집마다 노역과 세금을 줄여 주며

大小均澤: 대소 간의 혜택을 골고루 펼쳤도다.

政皆推清: 모든 정사를 정의롭게 수행 하였으니

倚輿清德: 아! 훌륭하도다. 청백리 같은 덕이여

河海大恩: 하해와 같은 큰 은혜로다.

難報完石: 이를 돌에 새긴 것으로는 이를 보답하기어렵도다.



① 심성지 영세불망비
② 대양면사무소 앞마당 송덕비



중대산 입구 심문의 상징인 만지송

불천지위 공록(不遷之位 功錄)

불천지위(不遷之位)란?

나라에 큰 공훈이 있거나 학문이 높으신 분에 대해 신주를 땅에 묻지 않고 사당에 모셔 영구히 제사를 지내는 것이 허락된 신위를 말한다. 불천위(不遷位) 또는 부조위(不祧位)라고도 한다.

불천위는 그 자손이 있는 한 분묘와는 별도로 사당에 신위를 모시고 제사를 지냄

불천지위는 시조(諱:洪浮) 문림랑공, 5세조(諱:溫)안효공, 6세조(諱:滄) 공숙공, 7세조(諱:瀚) 이경공, 8세조(諱:順徑) 호양공 등 모두 9명이다.

7세조(諱:瀚) 이경공 선조 불천위 공록

1469년에 성종대왕 즉위와 왕실을 잘 보좌하고 나라를 평화롭게 이룩한 공을 세운 공신들에게 제수한 공록으로 이경공 선조께서는 '순성명량 경제좌리공신 청천군(純誠明亮經濟佐理功臣菁川君)'으로 총 75명 중 12명만이 2등급 공신록을 제

수 받았음

시호(諡號)는 이경공(夷敬公)을 제수 받았으며, 관직은 '한성부우윤(漢城府右尹:지금의 서울부시장)을 지낸 당시 내려진 공신록은 1,2,3,4,등으로 나누어 제수하였으며, 1등급은 순성명량 경제 홍화좌리 공신: 신숙주, 한명회 등 9명 2등급은 순성명량 경제좌리공신: 완산대군 등 12명 3등급은 순성명량 좌리공신: 노사신 등 18명 4등급은 순성좌리공신: 김사온 등 36명으로 총 75명이 공신록을 제수 받음

8세조(諱:順徑)호양공 선조 불천위 공록

1506년 9월 연산군(燕山君)을 폐위하고 진성대군(제11대왕: 중종)을 옹립하여 중종반정을 결행한 공으로 '병충분의익 정국공신 청성군(秉忠奮義翊靖國功臣菁城君) 시호(諡號)호양공(胡襄公)을 제수 받았으며, 관직은 한성좌윤(漢城左尹)을 지낸

2018年 戊戌 秋享 獻誠金 內譯

구분	宗中(姓名)	金額	宗中(姓名)	金額	구분	宗中(姓名)	金額	宗中(姓名)	金額
始祖 (청송)	도총제공종회	200,000	선산종회	300,000	3世祖 (안성)	도총제공종회	100,000	안효공종회	300,000
	인수부윤공종회	300,000	대구종회	200,000		인수부윤공종회	300,000	대전, 충남, 세종종회	100,000
	안효공과종회	1,000,000	신천공과 지경종중	200,000		합계	800,000		
	내금위울산종회	200,000	대구 심훈택	100,000	4世祖 (연천)	도총제공종회	100,000	내금위종회(울산)	200,000
	합계	2,500,000				인수부윤종회	300,000	신천공과 지경종중	100,000
				안효공과종회		300,000	대전, 세종, 충남종회	100,000	
2世祖 (함열)	도총제공종회	100,000	여수 천섭	100,000	공숙공종중	200,000			
	안효공과종회	300,000			합계	1,300,000			
	합계	500,000			4世祖 配位 (청주)	도총제공종회	200,000	안효공종회	300,000
					합계	500,000			

영의정 晚沙相公 沈之源(심지원, 1593~1662)의 업적과 淸德碑(2)

- 인수부윤공(沈澄)의 후예로 가문을 빛내다 -



심재석

역사학 박사
한국외대 대우교수

5. 만사상공의 업적을 되새기며 : 만사상공의 정치적 업적과 후대에 남긴 교훈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 1) 백성들의 어려운 삶을 개선하려고 진력하였다
- 2) 국방 문제에 큰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다.
- 3) 국왕에게도 거침없이 직언하다!
- 4) 자연 재이(災異)가 발생하면, 국왕이 하늘의 뜻을 '두렵게 여겨 덕을 닦고 자신의 허물을 살피라(공구수성(恐懼修省))'고 강조하였다

만사공이 살았던 조선 중기는 지구의 소빙기(小氷期) 현상으로 인해 재이(災異)가 심하였다. 이에 신하들은 군주성학론(君主聖學論)으로 대응하여 군주의 수성(修省)을 강조하였다. 만사공 역시 자연 재이에 대하여 국왕의 修省을 누차 강조하고 있다(「효종실록」 4년 2.25/10.10/11.3/5년 6.13/10.7).

5) 두 번 청나라에 正使로 다녀오다:

① 1차 쫓대 사신행(1653년) : 1차 사행은 동지사(冬至使)로서의 임무였다. 환갑을 넘긴 나이였지만, 만사공은 자원하여 길을 떠났다. 이에 효종 임금이 민망하게 여겨 털옷, 호초, 단목(胡椒, 丹木) 등 구급약을 주었다. 그리고 卍子 역시 약재를 제공하였다. 그런데 이 사행을 마치고 귀국하던 만사공은, 관례에 따라 사신들에게 내려 준 은과 비단 모두를 평양 감영에 바쳤다. 나아가 청나라 연경(燕京)의 물건을 일체 지니지 않고 귀가하니 여론의 칭송이 자자했다. 첫 번째 연행(燕行)에서 기록한 연행일승(燕行日乘)은 학술적 가치가 높다. 이 기록에 의하면 요동을 지나면서 숙소가 없어 노숙하였고, 식사를 가마 안에서 해결하기도 하였다.

② 2차 丁酉 사신행(1657년) : 이 번 사행의 보고에서는 “청의 풍속은 부처를 섬기고 귀신에게 비는 것이 양무제 때보다 심합니다. 제일(齋日)이 많기 때문에 公事가 지연된다.”고 보고하였다. 만사공이 사신으로 청에 다녀오면서 그쪽 사정을 파악하여 조정에 알린 것이다.

6) “조정에 시호(諡號)를 청하지 말라” : 만사공은 자신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정승이 되었다고 겸손해 하면서, 본인 사후 조정에 시호를 청하지 말라고 유언하였다.

7) 청백리로서의 삶과 극진한 효성 : 만사공의 청빈함은 연경에 갔다 오는 사신에게 내리는 일체의 물품을 평양 감영에 바치는 데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그러한 삶이었기에 서거 후 가세가 넉넉지 못함을 고려하여 3년 간 더 녹봉을 지급하라는 국왕의 배려가 있었다.

나아가 노모 봉양이 곤란 할 정도로 청빈한 삶을 살았고, 관리들의 인사를 주관할 때도 일체의 부정이 없었다. 청백리였던 청성백 심덕부의 후손으로서 부끄러움이 없었던 것이다. 풍기에서 거주할 때 집에 불이나 노모가 위급하게 되자, 만사공은 불속에 들어가 노모를

사후에 조정에 시호를 청하지 말라

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에 상처를 입지 않아 사람들이 감동했다고 한다.

8) 만사유고(晚沙遺稿)를 남기다 : 5권 1책의 목판본으로, 1759년(영조 35) 손자 정최(沈廷最)에 의하여 간행되었다. 이 책은 조선시대 연구에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6. 성품과 후손 및 산송(山訟)

1) 성품 : 만사공은 강직한 재상으로서의 모습이 상상된다. 젊어서는 열성적으로 공부하여 집안에 글 읽는 소리가 떠나지 않게 하였고, 외모는 기골이 장대하고 미남형의 인상을 지녔으며, 성품은 근엄하였다. 술도 절제하여 마실 것을 권하였다. “요즘 사람들은 대부분 진탕 마셔서 위의를 상실하고 일을 폐지하기까지 하니, 매우 가증스러운 일이다”(「효종실록」 6년 8.1)

2) 후손 : 만사상공의 후손으로는 효종의 부마인 익현(沈益顯), 증손자인 조선후기 양반 출신의 대표적 화가 심사정(沈師正)이 있다. 그리고 6대손이며 효행으로 이름 난 낙수(沈樂洙)는 제주목사 시절 선정을 베풀고 「탐라빈홍록(耽羅賓興錄)」을 편찬하고 은파산고(恩坡散稿)를 저술하였다. 그 아들 노승(沈魯崇)은 조선후기 양반계층의 실상을 기록한 자서실기(自著實紀)로 유명하다.

연산군의 무오사화(1498) 때 울산지역으로 귀양가 거기서 정착한 광형, 황(沈光衡, 沈滉) 父子의 후손들이 내금위총회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광주 광산의 동호동 남동영각(南洞影閣)에 배향된 원표, 종대, 한구(沈遠杓, 沈鍾大, 沈翰求)3대가 있다. 근래의 인물로는 沈明九 전 대총회장, 4선 국회의원을 역임한 沈晶九 인수부윤공파 회장, 울산광역시장을 지낸 沈完求 전 국회의원, 沈載求 인수부윤공파 총무이사과 沈長植·沈忠植(字)鮮光 회장 형제가 크게 활약하고 있다.

3) 산송(山訟) : 만사공 사후 영조대왕도 못 말린 조선 최대의 산송이 벌어진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심지원 묘와 윤관 묘를 두고 양가 후손들 사이에서 오래 지속된 산송인 것이다. 사실 윤 씨들의 억지주장으로 인해 발생한 이 사건은 영조대왕의 “각기 선조의 묘를 지키라.”는 판결로 마무리 되었다. 그러나 이후에도 분쟁이 계속되어, 영조대왕이 경희궁의 興化門에 나가 친히 양가 대표 심정최와 윤희복을 밤새도록 심문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당시 70세였던 두 사람을 귀양 보냈는데, 윤희복이 귀양 가는 도중에 사망하였다(「영조실록」 41년(1765) 윤2.23).

그 후 1969년에 양가 대표 沈鍾益과 尹興勳이 두 분 묘 사이에 곡장(曲牆)을 설치하였다(「坡州分院山訟顛末」 1999년). 근래 청송 심 씨(심명구 회장)의 통 큰 양보로 선대 묘를 2008년 8월 25일에 천장(遷葬)복원을 완료함으로써 분쟁을 완전히 끝낸 것은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천장 과정에서 나온 수 백점의 유물들은 경기도박물관에 기탁되어 조선의 문화 연구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7. 맺음말 : 청백리요 명필 재상으로서, 강인한 성품과 애민 정신으로 백성들의 칭송이 자자했던 만사상공 심지원. 우리 청송 심문의 큰 자랑이요 자긍심의 원천



① 만사공의 묘소-파주 광탄면 분수리
② 천장사적비

이다. 후손된 자 어찌 만사상공을 본받지 않으랴. 청덕비 하단에 영천 백성들이 새겨 준 시구가 가슴을 울린다.

우리 군수님은 매우 고아한 인품의 소유자로 / 고상하고 정결하시어 광채가 났네 / 아! 우리 군수님 / 후세 사람들이 어찌 잊을 수 있겠는가

규장지자 빙옥지광 의여아후 후세난망 [珪璋之資 氷玉之光 猗歟我侯 後世難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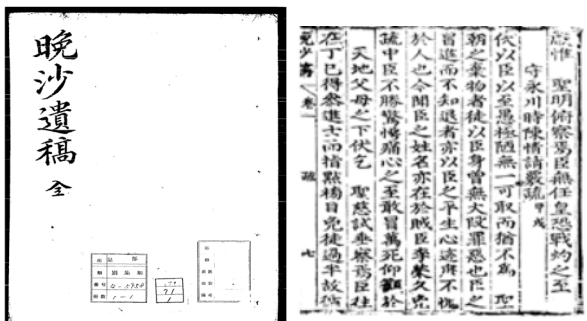
◎ 부기 : 이 비의 중요한 가치가 있는 '후면의 내용'은 어느 곳에도 원문이 전하지 않는다. 심문의 자료를 보존하고, 유관 기관에서 관련 책자를 편찬할 때 참고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탁본을 싣고 원문과 번역문을 기재한다.



◀ 청덕비 후면 탁본

此我外曾王(考) 領議政晚沙沈公遺愛碑也 公於崇禎癸酉以舍人出守甲戌以中丞召還莅政歲周厚澤洽沾邑民豎石以頌其德後八十二年小子又守茲土則字漫苔剝不勝欽感構閣重鐫要壽其傳若其淸德不敢肖骨惟以懷民克懼忝勸焉實乙未三月日也外曾孫 郡守李命熙 判宦李宇昌 首吏李世茂 監役蓋公首吏雲翔之孫爾

〈청덕비 후면 내용〉 : 이것은 나의 外曾王(외증조부) 영의정 만사 심공(沈之源)의 유애비(遺愛碑)(善政碑)이다. 공은 송정(崇禎) 계유년(서기 1633, 인조 11년)에 사인(舍人)으로 永川郡守가 되었다, 갑술년(1634)에 中丞(사헌부 집의, 정 3품)으로 소환되어 정사를 맡았는데, 일 년쯤 지나 (영천지방에) 두터운 은택이 넘쳐나자 고을 백성들이 비석을 세워 그 덕을 칭송하였다. 그런데 82년 후에 소자가 또 이 영천의 수령이 되어 와보니, 글자는 희미해지고 이끼가 끼어서 벗겨졌다. 이에 흠모와 감동을 이길 수 없어, 비각을 짓고 글자를 다시 새겨서 오래도록 전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만사공의) 그 맑은 덕을 감히 이어받지 못하고 오직 백성을 생각하면 게으름만 더한 것 같아서 두렵다. 이때가 실로 을미년(1715년, 숙종 41) 3월 〇일이다. 외증손 군수 이명희가 적음. 判宦 이우창과 首吏 이세무가 監役을 하였는데, 공의 首吏 雲翔(雲翔)의 손자이다.



● 정정 : 지난 호(133호 4면), 만사공의 후 배위 '파평 윤씨' 는 '해평(海平) 윤씨' 의 오기임. 윤보선 대통령이 해평 윤씨이다.

심온이 비록 중죄를 범하였으나 공비(恭妃)가 이미 주상의 배필...

安孝公(諱:溫) 600주기 기신제향

세종장헌대왕실록 (즉위년1418)

12월22일 이육(李勗)이 심온을 잡아 오니, 이에 이명덕, 허지, 성엄, 정초를 명하여 의금부와 같이 이를 심문하게 하다. 심온이 상인(尙仁) 등이 죽은 줄을 모르고, 그들과 더불어 대변(對辯)하기를 요구하다. 이에 매로 치고 압슬형(壓膝刑)을 쓰니, 심온이 말하기를, "반드시 면하지 못할 것이다." 하면서 드디어 복죄하기를 상인 등 여러 사람이 아뢰 바와 모두 같습니다. "신은 무인(武人)인 까닭으로 병권(兵權)을 잡아 보지는 것뿐이고, 함께 모의 한 자는 상인 등 여러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은 없습니다" 고 하니, 다시 신문하다. 안수산(安壽山)이 옥방(獄房)에서 바라다보는데, 심온이 마침 이를 돌아보고 말하기를, "수산도 또한 이를 알았다." 고 하다. 수산이 마주 대하여 논변(論辯)하고 고문(拷問)을 받았으나 복죄하지 않으니, 심온이 또한 무함하였다고 자복하여 수산이 그제야 죄를 면하게 되다.

12월23일 "심온이 비록 중죄(重罪)를 범하였으나, 공비(恭妃)가 이미 주상의 배필이 되어 아들을 많이 둔 경사가 있으니, 어찌 다른 사람에 비할 수 있으랴." 하고 진무, 이양을 명하여, 수원(水原)으로 압송(押送)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하고 또 가산(家産)을 돌려주어 장사(葬事)를 지내도록 하다. 처음에 의금부에서 심온에게 묻기를 "...한 것은 마땅히 상왕을 어떤 처지에 두려고 하였던 것이냐" 하니, 대답하기를, "이와 같이 억지로 묻는 것은, 나로써 상왕에게 무례(無禮)한 것을 행하리라고 치는 것이로구나." 고 하다. 의금부에서 낭고낭관(郎官)으로 하여금 아뢰기를, "심온이 상왕에게 무례한 짓을 행하고자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하니, 상왕이 한참 동안 깊이 생각하다가 주상에게 말하기를, "내가 사약(死藥)을 내리고자 하였더니, 지금 이 말을 들으니 반드시 아니할 수는 없겠다." 하고 또 말하기를, "이 사람은 비록 극형에 처 하더라도, 그 딸을 폐하고 세우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리할 이치가 없다." 고 하다. 후에

의금부제조(義禁府提調) 등이 수강궁에 나아가서 아뢰기를, "무례한 짓을 행하고자 한다는 말은, 그의 말과 기색을 본다면, 분격(奮擊)한 데서 나온 것이고, 그 실정(實情)은 아니므로, 계본(啓本)속에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고 하다. 상왕이 주상에게 이르기를, "만약 그렇다면, 마땅히 사약을 내릴 것이고 형(刑)은 더할 수 없다." 고 하면서 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하라 하다.

12월25일 이양(李揚)이 돌아와서 아뢰기를, "심온은 이미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하니, 선지(宣旨)하기를, "심온은 비록 예(禮)를 갖추어 장사지내지 못할지라도, 또한 후하게 하지 않을 수 없다." 하고 이에 이양달(李陽達)을 보내어 장사지낼 땅을 가려 정하게 하고 수원부(水原府)에 명하여 장사(葬事)를 치르게 하며, 또 관곽(棺槨), 종이, 석회(石灰)를 내려주고, 내관(內官)을 보내어 장사를 돌보게 하고, 있는 곳의 관원으로 하여금 치제(致祭)하게 하다.

심온의 자(字)는 중옥(仲玉)이니, 경상도 청보군(靑寶郡) 사람으로, 증조(曾祖) 연(淵)은 고려의 각문지후(閣門祗候)요, 조부 용(龍)은 고려의 증 문하시중(贈 門下侍中) 청화부원군(淸華府院君)이요, 아버지 덕부(德符)는 본조(本朝)의 좌정승(左政丞) 청성백(淸城伯)이요, 어머니는 인천문씨(仁川門氏)이니, 낭장(郎將) 필대(必大)의 딸이다.

심온은 나이 11세에 고려의 감시(監試)에 합격하고, 국초(國初) 병조와 공조(工曹)의 의랑(議郎)을 역임하였다.

공정왕(恭靖王 정종)이 왕위에 오르매, 보공장군 용무사 대호군(保功將軍 龍武司 大護軍)에 제수(除授)되고 신무사 대호군(神武司 大護軍)으로 옮겨다가, 태종

(太宗)의 초기에 본직(本職)으로서 지각문사(知閣門事)가 되고, 4년에 대호군으로서 간관내시 다방사(幹辦內寺 茶房寺)가 되고, 조금 후에 용양사 상호군(龍驤司 上護軍)에 승진되어 관통례문사(判通禮門事)를 겸하다. 7년에 승정원 동부대언(承政院 同副代言)에 발탁되어, 여러 번 승진하여 좌부대언(左副代言)이 되고, 조금 후에 가선대부 좌군 동지총제(嘉善大夫 左軍 同知摠制)에 임명되고, 11년에 가정대부 풍해도 도관찰사(嘉靖大夫 豐海道 都觀察使)에 임명 되었다가 돌아와서 참지 의정부사(參知 議政府事)가 되고, 조금 후에 사헌부 대사헌이 되고, 14년에 자헌대부 형조판서(資憲大夫 刑曹判書)가 되었다가 호조판서(戶曹判書)로 옮겨졌다. 이로부터 여러 번 한성판윤(漢城判尹), 의정부참찬(議政府參贊), 좌군 도총제(左軍都摠制)를 역임하고, 정헌대부 이조판서(正憲大夫 吏曹判書)가 되었다. 임금이 왕위에 오르매, 국구(國舅)로서 청성부원군(淸城府院君)에 봉하고, 조금 후에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가 되었다가 이때에 이르러, 나이 44세이다. 심온은 성품이 인자하고 온순하여 물정(物情)에 거슬리지 않다. 평소 하륜(河崙)과 뜻이 서로 맞지 않았는데, 어느 날 심온이 임금에게 아뢰기를, "하륜이 빈객(賓客)과 많이 교통하고 뇌물을 많이 받아들이며, 대낮에 첩의 집에 드나드니, 추잡한 행실이 이와 같습니다." 하면서, 장차 밀계(密啓)하고자 하므로, 임금이 상세히 상왕에게 아뢰니, 상왕이 말하기를 "신하가 밀계함이 있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며, 또 의인의 의심을 초래(招來)하게 될 것이다." 하여 마침내 불러보지 아니하다. 양녕이 덕을 잃으매, 여러 신하들이 다 임금에게 마음이 돌아가게 되며 양녕도 가끔 임금의 어진 덕행을 말하니, 상왕이 이를 듣고 매우 불편하게 여기고, 인하여 심온에게 경계하여 감히 공공연하게 말하지 말라고 하고, 또 말하기를, "사인을 널리 접촉하지 말고 조심하여 법도를 지키라." 고 하다. "네 왕비의 아버지가 사신으로 갔다 돌아오면, 매양 세말(歲末)이 되니, 친히 왕비의 종족과 더불어 그 집에 가서 잔치를 베풀어 위로할 것이다." 고 하더니, 그가 돌아오기 전에 옥사(獄事)가 일어난다.

임금이 동궁(東宮)에 있을 적에 심온이 아뢰기를, "지금의 사대부(士大夫)들이 나를 보면 모두 은근한 뜻을 보내니, 심히 두렵습니다. 마땅히 손을 사절(謝絶)하고 조용히 여생을 보내야 되겠습니다." 하므로, 임금이 즉시 이 말을 아뢰었더니, 상왕이 심히 옳게 여기다.

이때에 상왕이 임금에게 말하기를 "심온이 전일에 손을 사절하고 조용하게 지내겠다는 뜻은 심히 옳게 여겼더니, 지금 이와 같은 것은 무슨 까닭이나." 고 하다. 상왕이 임금에게 매양 이르기를 "네 비(妃)의 집은 상패(喪敗) 하였으나 오직 안수산(安壽山)만이 홀로 남아 있으니 고관대작(高官大爵)에 임명해야 할 것이다." 고 하므로, 수산이 얼마 아니 가서 중추부에 들어오다. 심온의 세 아들은 준(濬), 회(會), 결(決)이다.

개요(概要)
 * 심온은 태종이 승하한 후에도 복권되지 못하다가 외손자인 문종이 즉위한 후에야 겨우 복권 된다. 세종도 장인인 심온이 억울하다는 건 알았지만 심온이 결백했다고 밝히고 복권시킬 경우 자기 아버지 태종이 죄 없는 사람을 죽였다고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서, 국왕으로서 정치적 부담과 왕실의 위엄 때문에 손을 못 대었던 것으로 보인다.

안효공 휘 온(安孝公諱 溫) 600주기 기신제 특집 끝.



안평대군 친필 외조부 안효공묘비 (진품은 현재 수원광교박물관 소장)



10월 22일(음력 9월 14일) 안효공배위 삼한국대부인 순흥안씨 추향제



삼한국대부인 순흥안씨 재실 경모재

9세조 수찬공(修撰公, 諱 : 達源) 종회 탐방



심형찬

수찬공종회 회장
금릉대성원 원장

대곶면 藥山에 처음 터를 잡은 분은, 김종서의 손녀사위인 7세조 심치(沈湍)이다. 이곳은 大明港을 통해 한양과 쉽게 왕래할 수 있는 교통의 요지이다.

1. 수찬공(정 6품)의 최종 관직은 통례원 '左通禮(정 3품)이다. 더 높은 관직명으로 종회명칭을 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요?

“좌통례는 ‘조정의 의례(儀禮)’를 관장하는 직책입니다. 관직 자체는 좌통례가 정 3품으로 높지만, 일의 성격상 더 중요한 것이 수찬(修撰)의 일이기 때문에 후손들은 ‘수찬공’이라고 칭합니다. 홍문관수찬은 정 6품 관직으로, 문헌편수(文獻編修)의 일을 맡았고 국왕이 내리는 敎書를 작성하는 지제교(知製敎)를 겸임하는 영예로운 자리였습니다.”

2. 수찬공 종중의 연혁을 말씀해 주십시오

“수찬공과 종회는 1973년 6월 10일에 창립총회를 가졌습니다. 당시 임원은 고문 10명, 회장(相天), 부회장(宜權·載甲·應苗), 이사 12명, 간사(相喜)로 구성되었습니다. 이후 1995년에 정관을 개정하였으며, 1997년에는 감사공(銓)의 신도비문을 건립키로 결의한 바 있습니다. 2002년에 임원진을 개선하여 회장에 達燮, 총무에 好燮 등을 선임하였고, 2010년에는 회장에 吉燮, 총무에 炯甲이 선임되었습니다.”

3. 수찬공 沈達源(1494, 성종 25~1535, 중종 30) 행적 : 수찬공은 사인공(順門) 소생 '4源' 중 둘째로 '기묘명현'의 일인이다. 금천현감(衿川縣監)을 지낸 심형(沈炯)에게 출계하였다. 수찬공은 24세 때인 1517년(중종 12)에 별시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여 弘文館正字에 제수되었고, 이어서 부수찬(副修撰)에 올랐다. 26세인 1519년 이조좌랑이 되었으나, 기묘 사화가 일어나자 반대파의 탄핵을 받아 고향인 약산(藥山)으로 귀양갔다. 29세인 1522년 영의정 정광필의 주선으로 죄가 사면되어 성균관직장에 임명되었으나 대간들의 탄핵으로 곧 체직되었다. 그 뒤 37세인 1530년 오위의 호군이 되었으나 파직되었다.

그러나 중국어(漢語)와 중국과 외교문서에 쓰던 조선시대의 독특한 용어인 吏文에 통달하였으므로 ‘漢語吏文皆通曉’ 「中宗實錄」 28년(1533) 4월 9일), 해당 관청에서 강력히 추천하여 40세인 1533년에 승무원판교(承文院判校)에 임명되었다. 외교문서 작성에 많은 공로를 세웠고, 이문교육에 이바지하여 중종의 신임을 받았다. 벼슬은 42세(1535)에 통례원좌통례(정3품)에 이르렀으나, 그해 겨울 갑자기 병에 감염되어 서거하였다. 아마 급성 폐렴이 아니었을까



수찬공(諱: 達源)묘소

한다. 좀 더 오래 사셨더라면 외교 문제에서 많은 업적이 있었을 텐데, 애석하기 짝이 없다.

4. 현재 수찬공 종회의 임원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2014년 10월 18일에 임원진을 개선하여 고문(吉燮), 회장(炯燮), 부회장(種澤·昌燮·仲根)이사(明澤·鼎澤·左輔·載春·玄根·炯茂·南燮·昌燮), 감사(相勳), 총무(炯甲)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 수찬공의 후손들 : 수찬공은 진, 자, 전, 수(鎭·鎡·銓·鎡)등 4명의 자제를 두었고, 모두 현달하였다. 이 중 곡산공 鎡는 공숙공의 증손자인 흥원(興源)에게 출계하였는바, 수의 둘째 아드님이 임란 시 진주성에서 순절한 友信장군이다. 기라성처럼 많은 후손들이 배출되었지만 역사적으로 부각되는 인물을 약간 명만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① 심우승(沈友勝): 임란 때 선조를 호종하여 호성공신 2등에 책록되었다. 1593년 명나라에 구원군을 청하러 가는 진주사의 서장관(書狀官)으로 임무를 수행하였다. 1604년 호성공신 2등에 책록되고 청계부원군(靑溪府院君)으로 추록되었다.

② 沈友正: 임란 때 왕세자를 모시고 해서 지방을 돌며 백성들을 위무하였다. 1597년 정유재란 때는 광주목사로서 남한산성을 수축하였고, 다음해에는 영남에 주둔한 명나라 군대의 군량미를 조달하는 책임을 맡았다. 아들이 심현과 심즙이다.

③ 심즙(沈諝): 7살에 시를 지어 세상을 놀라게 했고, 병자호란 때 형조판서로서 화친의 조건이 되는 볼모로서 청나라 군영에 갔으나 실패하였다. 이후 예조판서에 이르렀으나, 아들 동구(東龜)가 심기원 사건에 연좌되어 유배되자 지병이 악화되어 별세하였다. 시호는 효간(孝簡)이다.

④ 심현(沈諤): 병자호란 시 강화도에서 순절하여 강화 忠烈祠에 배향되었다. 강화 출신 高在亨은 1906년에 강화도를 순례하면서 256수의 시를 남겼는바, 그 중에 심현의 충의심을 읊은 시가 있다.

大義에 순국하신 沈公은 종묘에 빛나있고 / 말 한마디로 조용히 정절을 지킨 부인이 있었으니 만고에 드문 여필종부의 강상을 지냈어라 / 상소하는 글자마다 눈물만이 가득하여라(「華南集」)

⑤ 심숙(沈淑): 병자호란 시 강화도에서 심현과 함께 의병을 일으켰다. 의병장이 되어 갑곶진에 출전한 심숙은 적진으로 달려간 후 소식이 끊겼다. 이후 면민들이 추천하였으나 총렬사가 협소하여 배향치 못한 것이다. 총렬사에 배향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⑥ 심해(沈澮) - 심해 처 東萊鄭氏 순절: 임란 이후 편찬된 동국신속삼강행실도 「東國新續三綱行實圖」에는 심해의 처 동래 정씨 순절 장면이 묘사되어있다. 심해 처를 비롯한 12명의 부녀자가 정유재란 시 왜군의 겁탈을 피해 칠산 앞바다에 투신한 것이다. 아산에 정려(旌閭)가 세워졌다.

⑦ 심동구, 심유(沈東龜·沈攸): 부자지간인 두 분의 호를 따서 부른 명칭이 '청봉, 오탄(晴峰·梧灘)이다. 문장 제일이었다. 청봉은 言官으로 있을 때 울곧



수찬공 신도비각

은 신하로 명성을 떨쳤고, 병자호란 때는 절의를 지켰다. 그러나 심기원 옥사 때 친척으로 연루되어 장흥에 유배를 갔다가 현종 때 신원되었다. 오탄은 황해도관찰사와 대사간 등을 역임하였다.

⑧ 심액(沈諳): 도승지·대사헌·이조 판서를 역임하고 靑松君에 봉해졌다. 효종에게 군덕 수행을 위한 十無字의 소를 올려 왕의 칭찬을 받았다.

⑨ 좌의정 심기원(沈器遠): 심기원은 인조를 옹립하여 공신이 되었으나, 반역의 혐의로 처형당했다. 나라를 바로 잡으려 노력한 불운의 재상으로 인조를 왕으로 만들었으나, 왕조를 튼튼히 하려다 '역모' 혐의로 떠난 재상이다. 이 사건은 실체가 없는 모함이고 조작일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 정밀한 연구가 진행되어 억울한 사실은 바로 잡혀야 한다.

⑩ 영의정 沈象奎: 두실상공으로 이름난 순조시대의 주역이었다. 국왕의 교과서 만기요람 「萬機要覽」을 저술하였다. 조선 최대의 장서가로 집안에 4만권 장서를 소유하였다. 광주유수 시절에 위위정·좌승당 등의 건물을 지어 국방의 의지를 다졌으며, 일송상공 심희수와 함께 청송 심문이 배출한 대제학(大提學)이다.

⑪ 沈星澤(1865~1941) - [私立] 金陵大聖院 건립(1927).

대곶면장을 지낸 심성택은 초대 수찬공 회장을 지낸 相天의 부친으로, 중국 곡부에서 孔子像을 그려와 홀로 제향을 지내다가 이웃 주민들이 같이하자고 하면서 대성원을 건립하였다고 한다. 금릉대성원은 한마디로 김포 '藥山의 鄉校' 정도라고 하겠다. 여기서는 매년 음력 2월 18일인 공자의 기진일(忌辰日)을 석전일로 정하여 석전제를 봉행한다. 대성원 아래 옆길에 세워져 있는 비석의 내용은 이렇다.

〈벽송정 옛 터〉 선조의 휘는 합(諡)이요 호는 명곡(鳴谷)으로 桂坊에 거주하였다. 左副率行抱川縣監 僉同樞를 지냈으며, 藥山에 물러나 쉬면서 鳴珂谷 서쪽 기슭에 정자를 짓고 시를 읊으며 소묘하였다. 향년 82세였다.

鳴谷秋陰晚(명곡엔 가을 그림자 늦은데), 薇山夜月遲(미산엔 밤에 뜬 달이 더디구나) - 무오년 봄 3월 후손 사마 진사 청송 심성택이 비를 세움.

⑫ 沈彥俸(1922~1954): 헌병사령관을 마치고 논산 제2훈련소장으로 있으면서, 함열 2세조 묘소의 위토를 대금을 지불하고 환수하였다. 그리고 재실을 수리하여 지금의 영모재가 있게 한 공로가 크다.

◆ 종회 탐방을 마치며 : 김포 대곶면 약암리는 藥山의 청송 심 씨와 赤巖의 청주 한 씨가 동족마을을 이루며 세거하였다. 지금은 소수의 종인들만 묘하에 거주하고 있지만 오랜 시간을 심 씨들로 이루어진 큰 동족 마을을 이루고 살았던 것이다. 탐방 후 인천 서구 공촌동의 수찬공 후손 묘역을 참배하였다. 묘역관리에 진력하시면서 講學에 해박한 左輔 선생님의 설명에 감사드린다. 수찬공 종회의 화합과 발전을 기원하면서 오늘 환대해준 炯燮 회장님을 비롯한 종원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

필자: 심재석(종보 편집위원)



수찬공 종회탐방 기념(淸心齋에서)

大宗會 主管 享祀

文林郎公(諱 洪孚) 秋享奉行 2018년 10월 17일(음력09월09일)		閣門祇候公(諱 淵)秋享奉行 2018년 10월 19일(음력09월11일)		奉翊大夫公(諱 晟)秋享奉行 2018년 11월 02일(음력 09월25일)	
					
始祖		閣門祇候公		奉翊大夫公	
配位		配位		配位	
▶初獻	대평(大平)	▶初獻	무섭(茂燮)	▶初獻	대평(大平)
▶亞獻	무섭(茂燮) 상현(相賢)	▶亞獻	재룡(載龍) 중혁(鍾赫)	▶亞獻	언촌(彦村)
▶終獻	희구(喜求) 상국(相國)	▶終獻	홍섭(洪燮) 상소(相昭)	▶終獻	훈보(勳輔)
▶大祝	홍섭(弘燮)	▶大祝	홍섭(洪燮)	▶大祝	홍섭(洪燮)
▶執禮	상철(相哲)	▶執禮	언태(彦泰)	▶執禮	언태(彦泰)

大宗會 主管 享祀

靑華府院君(諱 龍) 秋享奉行 2018년 10월 21일(음력 09월13일)		靑華府院君 配位 金氏 秋享奉行 2018년 10월 21일(음력 09월13일)		靑城伯(諱 德符)秋享奉行 2018년 10월 23일(음력 09월15일)	
					
靑華府院君		靑華府院君 配位 金氏		靑城伯	
配位		配位		配位	
▶初獻	대평(大平)	▶初獻	무섭(茂燮)	▶初獻	상현(相賢)
▶亞獻	현근(玄根)	▶亞獻	구형(求亨)	▶亞獻	상직(相直) 재구(載求)
▶終獻	상열(相烈)	▶終獻	상호(相昊)	▶終獻	재룡(載龍) 인보(仁輔)
▶大祝	홍섭(洪燮)	▶大祝	홍섭(洪燮)	▶大祝	상홍(相弘)
▶執禮	언태(彦泰)	▶執禮	언태(彦泰)	▶執禮	언태(彦泰)

大宗會 主管 享祀

靑城伯 配位 淸州宋氏 秋享奉行 2018년 10월 25일(음력 09월17일)		都摠制公(諱 仁鳳) 秋享奉行 2018년 10월 25일(음력09월17일)		人壽府尹公(諱 澄)秋享奉行 2018년 10월 25일(음력09월17일)	
					
靑城伯 配位 淸州宋氏		都摠制公(諱 仁鳳)		人壽府尹公(諱 澄)	
配位		配位		配位	
▶初獻	무섭(茂燮)	▶初獻	상현(相賢)	▶初獻	구형(求亨)
▶亞獻	상열(相烈)	▶亞獻	혁보(赫輔)	▶亞獻	규화(揆華)
▶終獻	재봉(載奉)	▶終獻	대섭(大燮)	▶終獻	종복(種福)
▶大祝	철용(喆用)	▶大祝	철용(喆用)	▶大祝	우경(愚慶)
▶執禮	상호(相昊)	▶執禮	상호(相昊)	▶執禮	재구(載求)

支·派宗會 主管 享祀

安孝公 配位 三韓國大夫人 順興安氏 秋享奉行 2018년 10월 22일(음력 9월14일)		淸原君(淸原君)諱 涼 秋享奉行 2018년 11월 15일(음력 10월 8일)		良惠公(諱 石儁)秋享奉行 2018년 10월 28일(음력 9월 20일)	
					
安孝公 配位 順興安氏		淸原君(諱 涼)		良惠公(諱 石儁)	
配位		配位		配位	
▶初獻	무섭(茂燮)	▶初獻		▶初獻	정구(晶求)
▶亞獻	형찬(炯瓚)	▶亞獻	동섭(東燮)	▶亞獻	무섭(茂燮)
▶終獻	언선(彦璿)	▶終獻		▶終獻	찬구(贊求)
▶大祝	상홍(相弘)	▶大祝		▶大祝	홍섭(洪燮)
▶執禮	원섭(元燮)	▶執禮		▶執禮	재구(載求)

각종찬조현황 2018. 9. 26 ~ 2018. 11. 25

- 중보찬조**
- 300,000 청주중회(회장 재룡)
 - 100,000 재복(서울), 선길(광주), 언촌(경기)
 - 60,000 강채(전남)
 - 50,000 종규(충주), 정섭(광주), 경보(경북), 운식(울산), 양섭(춘천), 운택(서울), 민섭(광주), 광섭(양평), 광열(대구), 결(서울)
 - 30,000 웅택(인천), 진식(광주)
 - 20,000 관섭(전주)

- 장학찬조**
- 2,000,000 시정공파중회(회장 익섭)
 - 1,000,000 천석(구미)

- 임원회비**
- 50,000 진식(광주), 춘식(서울), 준구(동춘동), 민섭(광주), 성기(강원), 형무(인천), 종복(월명동), 정섭(서울), 규정(서울)

■ 중보·장학찬조 50만원 이상 찬조시 2회 사진게재

		
시정공파중회 회장 익섭	심천석(구미) 선산중회 이사	광주청광회 회장 재규
장학찬조 200만원 2018년 11월	장학찬조 100만원 2018년 11월	장학찬조 100만원 2018년 9월

제18회 곡성심청축제 성공리에 개최

지난 10월 6일부터 곡성 섬진강기차마을에서 열린 '제18회 곡성심청축제'는 심정섭 심청축제 위원장의 노고로 성황리에 개최 되었다.

행사는 대종회 심대평 회장님의 축사가 있었으며, 황후심청 금의환향길 행렬, 심봉사 체험, 공양미 삼백석 모으기 등의 이벤트로 진행되었다. 특히 공양미 삼백석 모으기 행사로 모금된 성금은 전액 시각장애인들의 개인수술비로 쓰여지고 있다고 한다.



제10회 대전 호 문화뿌리축제

10월 5일~7일까지 '호문화 뿌리축제'가 대전광역시 중구 주체로 뿌리공원에서 성대히 거행되었다.

우리 청송심씨는 대전종회 현근 회장님을 비롯하여 20여 명의 일가가 참석하여 222개 성씨 중 청송심씨 깃발을 세우고 111번째로 입장하여 관중으로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전북 김제가 고향이며 세무대 4기로 국제청 소득지원국 소득관리과 소득관리1, 2계 역임.

심상동

서기관 승진 (2018. 11. 21일자)

심옥이 작품전시회



지난 11월13일~20일까지 심옥이(白石, 東園)씨 개인전이 '시편의 향기'라는 주제로 인사동 한국미술관에서 있었다. 심옥이 일가는 아동문학가이며 국전 초대작가로 구미와 울산에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으며, 작품 1점을 대종회에 기증하였다.

송금안내

임원회비 · 종보찬조 · 장학찬조 · 족보대금 등 입금계좌

청송심씨대종회

농협 : 301-0107-5873-71

임원회비 납부 안내

2018년도 대종회 임원회비 입금안내 드립니다.

회 장 : 3백만원 부회장 : 30만원

감 사 : 20만원 이 사 : 5만원

미납된 임원께서는 12월20일까지 다음 계좌로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 301-0107-5873-71 청송심씨대종회

시정공파종회 장학금 기탁



11월20일 오산 시정공파종회(회장 심익섭)에서 대종회를 방문하여 심문의 인재육성에 힘써달라며 장학금 200만원을 전달하였다.

시조묘소 수호사찰 청송 보광사 전통사찰로 면모 일신

— 사업비 14억 투입, 극락전 주변 선방(禪房) 및 설법전 건립 —

청송심씨 본향(本鄉) 시조묘 수호 사찰(守護 寺刹)로 널리 알려진 천년고찰 경북 청송군 청송읍 덕리 보광사(普光寺)경내 극락전 주변 선방(禪房) 및 설법전(공양간) 건립공사가 착공 3년만에 오는 12월 준공목표로 현재 마무리 공사가 진행 중이다.

특히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동안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온 사찰 주지 무구 스님은 우리 심문의 일가이다. 지난 2011년 보광사 주지 부임 이래 전통사찰 복원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2017년 사찰경내 제각(祭閣)인 경북도 문화재자료인 만세루(萬歲樓)를 경북도 유형문화재(제509호)로 승격시켰고, 지난 2014년 12월 17일에는 보광사 극락전(極樂殿)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제1840호)로 지정·승격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스님은 지난 10년

간 쇠락해 가는 사찰을 일신 중창하여 현재의 전통사찰로 면모를 일신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여 지역민들과 우리 종인(宗人)들로 많은 청송을 받고 있다.



< 전통사찰로 새롭게 면모를 일신한 보광사 전경> 설법전(좌측) 및 선방(우측), 가운데는 기존의 만세루(앞), 극락전(뒤)

청송군-심수관가 한·일 다도교류회 개최

지난 10월 11일 주왕산관광단지내 민예촌에서 열려

조선도공 420년의 혼을 잇는 청송군-심수관가(재일교포) 한·일 다도교류회가 지난 10월 11일 청송 주왕산관광단지내 민예촌에서 개최되었다. 올해 4회째를 맞는 이 행사는 청송군과 일본 심수관가 등이 후원하는 행사이다. 양측이 매년 한차례씩 한국과 일본을 왕래하면서 민간 교류를 통해 청송백자의 우수성과 청송 도예문화의 발전을 드높이는 한편, 심수관가의 본향인 자랑스런 청송심문의 후예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는 계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매년 개최되고 있다.



탈북 일가 대종회방문

지난 10월 10일 탈북미녀 하운(나진), 효정(해산)씨가 대종회를 방문하여 대종회 대평 회장님, 익섭 전 동국대학교수, 응찬 전 통일부서기관, 대종회 상임이사들과 간담을 나누었다. 북한에서 아나운서를 했던 효정 일가와 통역안내원을 했었다는 하운 일가는 동아방송 채널A 티비 "이제 만나러 갑니다"에 출연하기도 했다.

두 사람은 모두 어린시절 할아버지, 아버지로부터 우리 청송심씨는 명문집안인 것을 잊지 말라는 당부의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

간담 후 대종회 대평 회장은 청송심씨는 한 할아버지 자손으로 모두 일가이니 대종회를 고향집처럼 찾아오라며 격려했다.



금지사항

- 1) 청송심문 지·파종회의 현황을 재정비코자 하오니, 각 지·파종회는 대종회 홈페이지 "대종회 소개-종회 결성 및 변동사항" 메뉴에서 서식을 출력(작성)하여 대종회 팩스(02-2269-7755)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지·파종회 결성 및 임원(회장, 총무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대종회에 즉시 통보요망
- 2) 각종 찬조금 명세서에 착오가 있을 경우 필히 대종회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종보찬조 지로용지는 3월과 9월 종보에 동봉 발송합니다.
- 4) 모범종인 소개를 위한 종인탐방이나 종회활동을 전국종인들에게 소개하는 종회탐방을 희망하시는 종인이나 종회는 갑택 문화이사에 신청 바랍니다.
- 5) 대종회 운영에 관한 문제점이나 개선점 및 발전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더욱 알찬 대종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